

연구보고서

지식기반사회의 학교도서관 정책방향

- 학교도서관 기본계획 검토작업단 구성·운영 -

한상완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과제 “지식기반사회의 학교도서관 정책방향 - 학교도서관 기본계획 검토작업단 구성·운영”의 최종보고서가 2001년 12월 중순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되었다. 본지는 이 연구결과를 널리 도서관계에 알리고 향후 지속적인 학교도서관 정책 방향에 관한 논의에 도움을 주고자 이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한다. 학교도서관의 비람직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주

1.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도서관 환경 변화

도서관은 사회적 진공상태 속에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유관기관들과 연계를 맺으면서 존재한다. 경제와 문화는 하부구조와 상부구조의 관계에 있다. 하부구조인 경제가 변하면 상부구조인 문화와 교육도 변하게 된다. 현재의 교육과 문화 패러다임 논의가 활발한 것도 이러한 경제체제의 변화에 주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무엇보다 자원과 노동에 기초한 경제체제의 변화에 주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무엇보다 자원과 노동에 기초한 경제에서 지식이 생산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지식을 생산·분배·소비하는 지식산업 내지는 문화유산의 총아로서 도서관과 교육의 역할 변화는 더욱더 중요해진다.

지식기반사회의 교육패러다임 변환은 학교교육 패러다임에서 평생학습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가르치는 사람 중심에서 배우는 사람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학교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부상하는 것이 바로 도서관이다.

인적자원개발시대의 도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환,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 증대 등으로 인하여 공공도서관은 명칭 및 기능 변경에 이르기까지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의미에서의 도서관의 확보 및 운영을 중심으로 한 열람 기능에서 평생학습, 지역인적자원개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2.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도서관 발전 비전과 과제

지식기반사회에서 도서관은 단순히 자료의 수집·보관·열람 기능수행을 넘어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장으로서의 기능까지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도서관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아무리 문화변동, 지식유량, 디지털 시대라고 하지만 한 민족과 국가의 총체적 지식을 축적

하여 보존하는 전통적 기능이 여전히 중요하다. 둘째, 지식이 축적되면 단순히 정보제공 기능에서 벗어나 정보와 지식이 흐르도록 하는 데 힘써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의 일차적 특징은 지식의 축적에서 유량으로의 변화에 있다. 지식의 특성은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가 부가되는 데 있다. 셋째,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도서관의 기능을 단순히 데이터의 제공에서 벗어나 지식을 생성하여 분배하여 주는 기능으로 한 단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도서관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정보센터 기능 외에 평생학습센터, 인적자원개발센터, 시민 문화 광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목적 평생교육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지식기반경제사회, 평생학습사회, 정보화 사회 도래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변화 패러다임에 따른 도서관의 미래상과 비전을 다음과 같이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의 부와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은 지식이다. 지식기반사회는 지식축적 → 지식활용 → 창의적인 지식 창출 → 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이다. 둘째,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인하여 지식의 상업화가 가속화된다. 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있다. 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문화/학습/레크리에이션/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서관은 단순히 정보제공 기능을 넘어서 적극적인 학습의 장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은 지적자본, 인적자본, 사회적 자원을 형성·확충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모든 도서관은 설립주체와 대상에 관계없이 일차적으로 강한 공공성을 띠는 공공기반시설이며, 공공도서관을 모체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도서관부터 기능별 특화 전략 및 연계 방안을 살펴본다. 첫째, 공공도서관은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지역 정보·문화·교육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둘째, 학교도서관은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과 학생의 교수 학습활동지원을 위한 교수·학습지원센터로 발전시키되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주민의 평생학습장으로 개방한다. 셋째, 대학도서관은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이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학술 연구 정보지원센터로 발전하도록 한다.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을 확충하여 일반 시민들에게의 개방이 확대되어 한다.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도서관 발전과제로는 첫째, 도서관을 지식창출·지식유통·지식관리의 거점으로 인식, 육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도서관을 복합시설 내지는 평생교육 거점 시설로써 육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단위 공공도서관 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넷째, 도서관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전문화해야 할 것이다.

3.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도서관 정책

문화관광부는 1991년 4월 『도서관백서』를 발표하였다. 이 백서에는 도서관 정책의 골격을 도서관 건립확충, 시설 및 자료 확충, 도서관 재정 확대, 도서관행정의 봉사체제로의 개선, 사서직 중심의 도서관 운영, 국립중앙도서관을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육성 등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도서관 종류별로 그 필요성과 기능 그리고 미래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립중앙도서관은, ①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르는 이용자의 새로운 요구에 대한 대응, ② 출판물의 증가에 따른 공간의 확보와 자료조직화의 문제, ③ 새로운 정보검색기술의 발달, ④ 국내의 도서관 협력체의 센터로써 중심적 장서역할을 수행하는 과제 등이 있다. 공공도서관은, ① 지식정보센터의 기능, ② 평생교육센터의 기능, ③ 사회문화센터의 기능, ④ 레크리에이션센터의 기능을 갖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① 자료선택 및 수집, ② 자료정리 및 보존관리, ③ 열람 및 대출봉사, ④ 참고 및 정보봉사, ⑤ 서지도구 및 정보검색시스템의 개발과 확보, ⑥ 학습, 연구, 편의시설의 제공, ⑦ 종합적인 경영관리 운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에게 종합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해 준다면 자료중심교육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해지고 문제해결능력을 육성하여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인적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4.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지식기반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다른 어떤 자원보다도 주요한 재화이기 때문에 이들 정보와 지식을 누가 언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성립되는 사회이며, 사회현장에서는 폭발적으로 생산되어 유통되는 정보와 지식을 모두 교과서에 수록할 수도 없고, 이들 지식이나 정보를 전부 가르칠 수도 없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육성을 통해 어떠한 과제나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만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문제해결능력을 육성하여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또한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과 자료중심교육을 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에 인쇄매체, 영상매체, 전자매체를 소장하여 다양한 학습자료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한다. 나아가 학교도서관은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은 물론 교수-학습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자료를 제공하여 열린교육이나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학교교육의 핵심인 동시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기관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센터이며 동시에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지식뿐만 아니라 학생들 각자의 다양한 재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일반대중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는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자료를 대출하고 열람을 권장한다. 이 활동은 지역사회의 주민에게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학교교육을 이해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이나 성인의 평생교육에 공헌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효과는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의 자료와 교재를 활용하여 학습 활동을 전개하게 되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기여할 수 있으며, 문제해결능력을 육성할 수 있다. 그리고, 독서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신장시켜 줄 수 있다.

5. 지역사회 내 도서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살펴보면 시설별로 각급 학교,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청소년 수련원, 문화센터, 과학관, 동물원, 식물원, 고궁, 기상청, 복지관, 서점, 체육시설, 역사관, PC방 등이 있다. 또한 형태별로는 문헌자료, 실물자료, 유물자료, 인물자료, 시청각자료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교육자원의 범위는 협의적으로 정규 교육자원만을 뜻하나 광의적으로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우리 사회와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시설과 자료들이 포함된다. 교육환경변화에 따라 현장학습, 체험학습이 보편화되고 중요시되면서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활용하려는 요구가 많아졌다.

도서관과 유사기관의 범위는 사회교육기관 중에서 도서관의 주요기능인 이용자들의 정보 요구에 응하는 형태를 갖고 있는 기관을 도서관 유사기관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도서관 유사기관의 범위를 첫째, 자료를 보유하고 시민과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둘째, 독서교육 실시, 셋째, 지역사회에 교육, 문화진흥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지역사회의 교육자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학교도서관이다. 학교도서관은 지역사회 내에 산재해 있는 교육자원들을 연계시켜주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지역사회의 교육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살아있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6. 학교도서관의 모형 개발

첫째, 이상적인 학교도서관 모형은 학교도서관 교육정보센터이다. 교육정보센터는 정보사회의 특성과 교육적 요청에 대응하고, 정보중심 교육과 열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쇄매체와 영상매체는 물론 인터넷과 같은 전자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도서관 교육정보센터는 기존의 학교도서관(실)과 시청각실을 통합하고 컴퓨터와 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종합 정보센터로써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열린교육, 학생 중심 교육, 자기 주도적 학습을 구현하기 위한 정보서비스와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시설과 공간이다. 이는 전통적인 학교도서관에 영상매체와 전자·통신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함과 동시에 지식·정보의 디지털화 및 자원 교류를 통해서 교수학습 과정에 기여하고 정보서비스를 다양화하려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료중심의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도서관의 공간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현장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학교도서관의 공간 문제는 시설공간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 이외에도 교육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교수-학습 지원공간이 분리되어 관리·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중심의 교과과정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공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특별실이 매체 유형별로 각각의 부서에 분산배치 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각 공간(특별실)들이 구조적으로 상호협력력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학습 매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특별실 담당자를 하나의 조직으로 묶고, 공간적으로 통합 내지는 근접 배치하는 공간 운영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교육과정 기여와 자료의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서교사 1인이 교육정보실과 같은 미디어센터를 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어학실이나 시청각실 등과 같이 사서교사가 관여하기 어려운 독립교과과정에 필요한 공간도 있다는 점, 특별실의 통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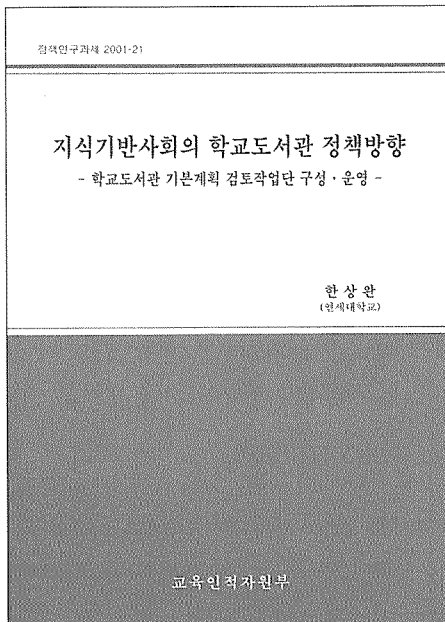
나 운영에는 각 부서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학교도서관의 교육정보실화를 위한 현실적인 공간 운영방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시설의 통합이 아닌 운영의 일원화, 도서실의 전산화, 효율적인 공간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각 실을 LAN으로 연결, 가능하다면 시청각실과 도서실의 공간적 통합 추진이다.

7.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첫째, 학교도서관 전담 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인사·예산·조직·관리·운영 등을 지도 감독하고 지원하는 전담 부서가 교육인적자원부는 물론 시·도 교육청과 지방교육청에 설치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중앙에는 <유아교육자원과>나 <특수교육보건과>와 같이 교육자치지원 국 산하에 <학교도서관지원과>를 설치하고, 학교도서관에 대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사서직원과 장학사와 연구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이나 지방교육청에도 <교육정보화과>나 <학교운영지원과>에 학교도서관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공공도서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에서 문제해결에 필요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에서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학교도서관 관계 법령의 정비 필요하다.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정비하여 교육환경과 핵심인 학교도서관을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물론 시·도교육청에서는 예산 편성 시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보다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예산 편성 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한다. 다섯째, 학교도서관 정보화를 들 수 있다. 학교도서관 정보화는 많은 인력, 예산, 잡무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 콘텐츠 인프라 구축이라는 국가 차원의 지식강국 건설사업과도 연계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여섯째, 학부모,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학교관계자 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예산확보, 학교도서관 운영 협조 등에서 여러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학부모, 자원봉사도우미 제도 등을 도입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에 협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같은 기관에서는 학교도서관 자료를 이용하여 수업을 전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과 협력하여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대 국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활동을 하도록 한다. 시·도 교육청 및 지역사회의 여러 단체와 연계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일곱째, 평가, 연수 및 유인가의 제공이다. 구체적인 유인책으로는 시·도 교육청의 평가나 각급 학교의 평가에서 학교도서관의 시설, 자료, 인적자원 등의 분야에 대한 평점을 높인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한 교원, 교장, 장학직에 대한 승진, 가산점, 포상, 기타 등의 유인기를 제공하

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한다. 교장, 교감 연수 등에서 학교도서관을 이용한 수업 방법이나 학교 도서관의 중요성 등을 알리는 학교도서관 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실질적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교장이기 때문이다. 학교도서관의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사례 또는 수기 등에 대한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여 자료집을 발간하고 시상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이 보고서에는 1. 학교도서관의 현황과 문제점, 2. 학교도서관 활성화 10개년 계획수립시 소요 재원 추정, 3. 학교도서관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참고자료로 수록하고 있어 향후 학교도서관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 명단>

- 연구책임자 : 한상완(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인문학부 교수)
- 공동연구원 : 김용철(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과 교수)
- 박홍석(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화팀장)
- 변우열(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과 교수)
- 송기호(개포고등학교 사서교사)
- 이병기(서울경영정보고등학교 사서교사)
- 이승길(경신고등학교 사서교사)
- 이해춘(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연구교수)
- 이희수(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운영실장)
- 한윤옥(경기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 함명식(서울맹학교 사서교사)
- 연구협력자 : 김태형(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 조정2과)
- 김기태(교육인적자원부 정보화지원담당관실)
- 이원오(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